

첨단 산업과 함께 한 화공재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도형[†]
전남대학교

(kdhh@chonnam.ac.kr[†])

30년 이상 석유화학 분야가 주요 근간이던 화학공학이 1980년 중반 반도체 산업 기술의 확장을 통해 재료 분야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빠른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노소재에 대한 합성 기술이 개발되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화공재료분야는 화학공학의 주요한 근간으로 성장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 화학공학회와 함께 해온 재료부문위원회 관심사 변화와 그 궤적을 통하여 미래에서의 화공재료 역할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